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저스타임즈 대표 정기남 목사의 임직원 일동

## 신년메시지

### 전화위복(轉禍爲福)의 자세로 2017년을 열어나가야



대표회장 이현훈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2017년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암울했던 2016년을 보내면서 한국 사회는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갈등이 표출되고, 감정이 행동으로 바뀌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내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정치구조의 전반적인 개혁을 갈망하는 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정치권이 개혁과 경제회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권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힘겨루기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현실은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문제가 문제로만 끝난다면 우리에게 변화와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드러난 정치권력 구조의 불균형과 사회의 어두움과 문제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화위복(轉禍爲福)의 자세로 2017년을 열어갈 때 새 희망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특히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으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Sola Fide, Sola Gratia, Sola Scriptura)”을 주창하며 온전히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회개이며 반성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설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확산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과 함께할 뿐 아니라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의 친구였습니다. 죄인을 심판할 분이 오히려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용서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이웃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용서할 때 화해가 일어나고, 화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8:11)  
회복과 개혁의 2017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공의로운 삶을 통해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가져오며,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이 넘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7년 신년메시지  
주님은 새해 아침 세상에 빛과 소금인 우리에게 겸허한 성찰과 진지한 각성을 요구하십니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시1:1~2)

2017년 새해 아침에 한국교회연합 산하 회원교단과 단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은 새해를 맞은 우리 모두에게 악한 길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라고 명하십니다. 불의와 불법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명령은 새해에 우리 한국교회가 국가적 사회적으로 처한 현실에 어떤 각오와 자세로 대응해야 할지를 일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 회개할 것을 끊임없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은 결국 BC 722년에 앗수르의 침략을 받아 망하고 말았습니다.

불의와 불법의 수렁에 빠져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현재와 당시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벧전 5:8). 그때나 지금이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만 악한 영의 공격을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어야만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새해 아침 세상에 빛과 소금인 우리에게 겸허한 성찰과 진지한 각성을 요구하십니다. 구태의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새 날을 시작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스스로를 돌이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 성장에 도취해 있는 동안 이웃과 세상 사이에 높은 담이 가로막히고 복음적 나눔과 소통마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선교 1세기에 나라와 민족에 희망이었던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외면당하는 이유는 선지자적 소명과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

리 모두는 한국기독교의 제2부흥을 외치기 전에 철저한 회개와 영적·도덕적 각성으로 갱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조화와 불평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생과 섬김의 낮은 자세로 사회적 약자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섬기는 데 열과 성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의 정치적 혼란은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도모한 대통령과 그 측근들뿐 아니라 불법을 묵인하고 동조하고 때로 외면한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호6:1)입니다. 이 땅에 대립과 분열이 그치고 다가올 대선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나아가 남북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 한국교회연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곧 교회 일치와 연합을 통한 교회의 하나됨과, 민족복음화 사명,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서 섬김을 다하는 사역에 변함없이 발 벗고 나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랜 갈등과 반목의 낡은 옷을 벗고 화해와 화평의 새날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하나님의 사랑



송택규 목사  
지저스타임즈 주필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나님은 감동 중에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자신을 닮은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 “어둠과 혼돈의 세상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둠속에서 찬란한 빛이 탄생하는 모습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감동하셨습니다.  
첫째 날도 감동하셨고 둘째 날도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도 감동하셨습니다. 자신을 닮은 자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니 너무 기쁜 나머지 감동이 벅차 “보시기에 아주 심히

좋았더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2017년 새해 죄인 된 모습으로 또 있습니다. 비틀거리는 우리의 못나 모습들을 보시며 기쁨이파하실 주님! 주님 이 세상이 두렵습니다. 바로 겁고 싶습니다. 똑바로 겁고 싶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희를 붙들

리라(사41:10)”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과 소망 중에 찬란한 2017년 새해를 감동으로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이 땅에서 죄악이 물러가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평화롭고 행복한 한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보수 2017년 신년하례회 공고

표어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사43:19)

2017년 총회 신년하례회 예배를 드립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2017년 신년하례

- 일시 : 2017년 1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동천교회(총회장 이규필 목사시무)
- 대상 : 목사, 사모(부부동반) 교역자
- ◆ 12시부터 점심식사 합니다.

◆ 합동보수교단 소속 신학교는 2017년도 신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새해에도 주님의 은총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일터 위에 함께하시며 놀라운 부흥과 축복으로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더욱 보람된 성총회로서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열심히 땀을 흘려드립니다.  
총회장 이규필 목사 외 임원일동 배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윤석철 박사

대구영남신학원  
학장 황홍주 목사

경남신학원  
학장 정호석 목사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신교회  
이사장 이규필 목사

총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구/가산동)  
☎ 02)854-1326, 02)496-0181(FAX), 010-7474-3173





사장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신앙을 찾는 것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 습니까? 우리 모두 처음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는 바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눈물 흘리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던 바로 그때 그 자리입니다. 순수했던 처음 그 자리, 하나님

을 영적으로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신앙을 찾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가장 깨끗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그 분을 섬기기보다 어느 사이에 자기 몸 섬기는게 우선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점검하며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오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를 깨달았던 그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

자, 진정한 헌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2017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침이 되고 방해되는 것들을 모두 정리하고 파괴해버려서 다시 일어나 뱀엘로 올라가는 심정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새해는 오직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시길



총회장 장한국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진리 총회장

영광과 오욕으로 점철된 한 해가 갔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모든 분들이 새해에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오직 주님으로부터 받는 평안, 위로, 큰 소망과 큰 믿음을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해는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시련의 밤이 깊어도, 또 장차 큰 환란의 밤이 올지라도 주 재림의 그 새벽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주의 날은 더 가까워졌고, 또 주

님은 셋별같이 우리 심령을 늘 비추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칭찬 받는 새해가 됩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주님은 복음서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세 번 말씀했지요. 첫째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눅 8:25) 즉 너희 믿음이 천국인가 아님 이 세상에 속했는가?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편에 있다고 고백할 때, 또 그 하

늘나라만을 늘 사모한다면 주님은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찌 네 믿음이 없느냐?" (막 4:40) 주님께 배개를 갖다 드리며 보살폈는데 지금 우리를 보살펴주셔야 하지 않나요? 하는 그들은 전혀 믿음이 아닌 행함이고, 하나님 의가 아닌 사람의 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찬해 주시리라. 새해는 오직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 하나님의 뜻을 이 민족에게 전달하여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신문방송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  
본지 대표이사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저스타임즈를 사랑해 주시고, (www.jtntv.kr) 인터넷방송 운영을 위하여 문서 선교를 위하여 기도와 후원을 아

까지 않으신 모든 분들이 계셨기에 본사가 성장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에 사장 소진우 목사를 비롯해 직원일동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 주심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일터 위에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이 땅에 참된 진리만을 전파하고 외치는 언론사로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바로 외치는 정론지로서 기자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필객이 되어 응골진 잣대로 편축을 갈고 닦아 나가겠습니다. 본 방송 신문사는 기독교를 대변하며 한국교회와 화합을 꾀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뉘지 않은 일에 대해 침묵하거나 갑언이설로 해석하려는 모든 시도를 철저히 경계할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밤마다 교회들의 십자가의 내은

불빛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지만, 진작 영혼 구원을 위하여 외치는 교회는 너무도 적습니다. 교회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영혼 구원이 아닌 돈 벌기 위한 수단인가... 또한 수많은 언론사가 있지만 기자의 정신은 어디 있는가... 뿌리 없는 나무처럼 생명력이 없습니다.

또한 불순세력들의 내란으로 선동으로 민중봉기 헌법파괴 정권탈취 폭력혁명을 패하고 게다가 퍼포먼스를 결집인 촛불집회를 선동하는 가운데 종편을 비롯한 신문, 방송, 통신 등의 거짓 보도로 국민들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 CJTNTV 방송과 JTNTV 지저스타임즈는 오직 사실만을 보도하는 정론지로서 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민족에

게 전달하여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신문방송이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주님 생명의 말씀이 전파

되는 곳에 못 생명이 살아나고,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2017년을 맞은 우리 모두는 기도로서 필객의 붓이 되어 열심히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록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파종진 목사 이사장: 조강주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본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tntv@hanmail.net / jtntvcpj@naver.com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담임목사 김창홍



성도목사 박영미

## 오순절교회협의회 謹賀新年

###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전성서수원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 예배 안내    | 요일      | 시간       | 장소      |
|----------|---------|----------|---------|
| 주일 예배    | 주일      | 오전 11:00 | 본당 (2층) |
| 기도원 예배   | 주일      | 오후 3:00  | 푸른초정기도원 |
| 유초등부 예배  | 주일      | 오전 9:00  | 기도실     |
| 중고등부 예배  | 주일      | 오전 9:00  | 지하성전    |
| 청년대학부 예배 | 주일      | 오후 2:00  | 본당 (2층) |
| 새벽기도회    | 매일(월-금) | 오전 6:00  | 지하성전    |
| 수요기도회    | 수요일     | 오후 8:00  | 지하성전    |
| 금요기도회    | 금요일     | 오후 9:00  | 지하성전    |
| 중고등부 기도회 | 토요일     | 오후 4:00  | 기도실     |
| 2시 기도회   | 매일(월-토) | 오후 2:00  | 기도실     |

†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당사상으로부터 출애굽하자!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원원(이전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 謹賀新年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수영 목사

- 한국여목성정학술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영교회원목위원
- 행복생전인사이드 센터 원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켜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은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이거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머리증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도 고침받은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은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은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은

#### 예배 시간 안내

|                 |                |
|-----------------|----------------|
|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
|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
|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 새벽 기도회 오전 5:00 |
|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

대구광역시 동구 요목로 36-5(요목동) 3층 우)41232  
☎ 053-752-8238 010-8537-8291

##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 謹賀新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역대상 16:34)



담임목사 이규필  
(합동보수 총회장)

#### 예/배/시/간/안/내

| 주일 대 예배 | 오전 11:00 | 영 아 부   | 오전 11:00                 |
|---------|----------|---------|--------------------------|
| 주일오후예배  | 오후 2:00  | 유 치 부   | 오전 9:00 오후 1:20          |
| 수요 기도회  | 오후 7:30  | 유. 초등부  | 오전 9:00 오후 1:20          |
| 금요새미기도회 | 오후 9:00  | 중, 고등부  |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6:00 |
| 구역예배(금) | 각 구역별로   | 청년, 대학부 |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6:00 |
| 새벽기도회   | 오전 5:00  | 성령충만기도회 | (수) 오후 7:30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 합동중앙총회신학 제43회 졸업식 가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총회 인준 중앙총회신학(학장 강효이 목사)는 지난 12월 28일(월) 오전 11시 종로여전도회관 루이스홀에서 제43회 졸업식에서 졸업생, 교수 축하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식을 가졌다.

이날 졸업식은 총회 총무 이승진 목사의 인도로 김명분 교수의 기도, 인도자의 성경봉독(마 28장 18-20)과 학생회 찬양 후 신학원장

김영희 목사는“가라 세상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원장 김영희 목사, 학장 강효이 목사, 대구총회신학원 학장 손문석 목사, 울산총회신학원 학장 조은혜 목사, 호남총회신학원(호남) 학장 김정문 목사, 호남총회신학원(광주)학장 최재홍 목사, 총동문화 회장 정애순 목사, 부흥사협의 대표회장 최길춘 목사, 여목회자연협회 회장 최길춘 목사, 사단법인 이사장 조

육신 목사 등이 각각 증서 수여 및 시상을 했다. 이어 김종호, 김현순, 김정민 재학생 대표가 졸업생 대표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 아울러 전 총회장 서옥임 목사의 격려사, 직전 총회장 유희열 목사가 권면, 총동문화 회장 정애순 목사, 부흥사협의 대표회장 최길춘 목사, 여목회자연협회 회장 김영숙 목사, 사단법인 이사장 조육신 목사가 축사



를, 학생처장 김선용 목사의 광고를, 설립자 강용식 목사의 축도로 졸업식을 마쳤다.

졸업장은 ▲학술원 김현기, 홍인순, 김춘남, 조관숙, 김성자, 김진영, 박요한, 유정길, 최복금 외 9명, △연구원 김원호, 김효순, 판금순, 허양순, 박종숙, 구위자, 박동신, 백혜자, 손형재, 어미경, 이택균, 정병순, 한병희, 문현미, 황운아, 고혜숙, 하혜봉, 변윤언, 전태용 외 19명 신학부 김상자, 김정숙, 윤정희, 김생기, 민영미, 송화순, 강성수, 최선희, 배미선, 외 9명 모두에게 졸업장이 수여됐다.

## ‘체코 보니 푸에리 소년합창단’과 함께하는 <빛의 숲 채리티 콘서트>

수익금 2천만원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에 전달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축하하며, 그 기쁨을 여러 이웃과 나누기 위해 지난 12월 16일(금) 저녁 7시 30분 광림교회에서 <빛의 숲 채리티 콘서트>가 열렸다. <빛의 숲 채리티 콘서트>는 세계 3대 소년합창단으로 이름이 알려진 ‘체코 보니 푸에리 소년합창단’과 뮤지컬 ‘오! 캐롤’ 팀의

특별공연으로 꾸며졌다. 1부에서 보니 푸에리 소년합창단은 아베마리아, 블타바, 할렐루야, 오페라 ‘팔려간 신부’ 중 ‘모두 기뻐합시다’, 한국노래인 고향의 노래, 랫 잇 고,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화이트 크리스마스 등을 불러 성도들에게 열렬한 박수와 큰 호응을 받았다. 2부에서는 뮤지컬 ‘오! 캐롤’ 팀의 주연배우

인 국민배우 이유리, 서경수, 김선경의 특별공연으로, 뮤지컬 ‘오! 캐롤’ 중에 나오는 곡들과 마리아 타, 사병 등의 찬양을 불러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

1부 보니 푸에리 소년합창단의 공연이 끝난 후에는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공연 수익금을 전하는 전달식이 있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그동안 광림교회가 숲속에 타는 불꽃같이 복음 전파를 위해 뜨겁게 타올랐다면,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둠과 추운 곳에 사랑의 빛을 비춰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난치병 어린이 치료를 위한 후원금으로 이번 <빛의 숲 채리티 콘서트>의 수익금을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에 기부하여 병마와 씨름하는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후원금을 받은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임석구 이사장은 광림교회 측에 깊은 감사사를 전했다.

또한 마지막 순서에서 ‘광림 사

람의 집’ 담당이었던故 장동호 목사의 치료를 위해 모았던 헌혈증서 700장도 부인인 전선옥 목사의 기증으로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에 전달되어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훈훈한 사랑의 성탄절 행사가 되었다.

## 한국 필리핀 경찰청 한국경목총회 국제 선교대회 열어

경찰청 한국경목총회(이하-한경총 총회장 최현기 목사)는 지난 2박3일간 필리핀 경찰청 경목총회로부터 초청을 받아 국제경목 선교대회를 위해 한국경목총회의 임원 및 이사진 20여명이 위문을 가졌다.

금번 행사는 양국 경목 교향방문을 하여 두 나라의 경목들의 우애와 선교 교류를 갖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필리핀 경찰청에서 실시하여 필리핀 국방부에 군복과 파도 우애를 돈독히 다졌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경목총회장



##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기도회’ 개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기도회’가 23일 오후 8시 대구제이교회(담임목사 김영석)에서 열렸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대구성시화운동본부(대표본부장 최영태 목사)가 주관한 이날 기도회는 김영석 목사(상임본부장)의 인도로 오승훈 목사(대구성시화운동본부 서기)의 대표기도, 이용화 장로(대구장로회 회장)의 성경봉독에 이어 대봉교회 권사찬양대가 특별한 양을 했다.

이어 박희종 목사(대구 대봉교회, 대구성시화운동본부 고문)가 요나서 1장 11~16절을 본문으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 목사는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를 걱정

하고 있다. 이것이 나라인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다. 이것이 교회인가?”라고 현재의 우리나라와 교회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 원인을 찾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지금의 국가적 상황을 부정부패를 몰아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정권 무너질 수 있다. 정당 사라질 수 있다.”면서 “그러나 내 조국을 미워하지는 말자. 국가의 안보와 조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히 “나 때문이라고 여기고 눈물과 무릎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홍석환 장로(대구기독교총연합회 회계)의 헌금기도, (사)나눔과 기쁨 나누미들의 특송에 이어 이선구 목사(사)사랑의살 나눔운동본부 이사장)가 짧과

의류 등 위문품을 대구성시화운동본부에 전달했다. 또한 이날 드린 헌금은 전액을 서문시장 화재 피해를 입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한다. 기도회에 앞서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성시화 지도자 간담회’ 갖고 황우여 장로(전 사회부총리, 용인대 석좌교수), 김영진 장로(전 농림부 장관, 한국교계국회5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전용태 장로(전 대구지부장,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이혜훈 국회의원,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를 감사로 ‘대한민국 건국정신’, ‘한국교계와 교회 협력사역’,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문제’, ‘이슬람 문제’, 세계성시화운동 사역 보고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또한 지난 달 30일 화재피해를 입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상인들을 위로했다.



최현기 목사는 필리핀 전국 군경목 150명과 한국경목 20여명이 자리를 같이하여 한국경목 선교보고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이어서 필리핀 경목에 추천을 받은 세븐의 지방청장 PSUPR SAMUEL A ERANDIO와 경찰청 경목총회장 PCSUPR PATERNO P BANGUI

(RER) / REV. DR. JEON, DAEGU에게 공로를 인정하여 공로패를 수여하며 축하했다. 아울러 필리핀 지방청장 PSUPR SAMUEL A ERANDIO가 한국경찰청 한국경목총회장 최현기 목사와 사무총장 홍원표 목사에게 공로를 인정하여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 2부 순서로 선교물품 전달식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필리핀 경찰청 신분증 수여식을 갖는 등 화기애애한 가운데 오찬을 나누고 양국 경목들의 친교를 가졌다. 이어 국방부로 장소를 옮겨 군목총사령관을 예방하고 양국 군선교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었고, 총회장 최현기 목사의 위로와 선물 증정으로 돈독한 우애를 가졌다. 한편 2017년 3월 경 한국군목선교회의 초청으로 내한할 예정이며, 이때 한국경목총회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양측 경목관계자들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기념촬영을 끝으로 선교행사를 마무리했다.

謹賀新年



대한예수교  
장로회

에복교회

2017년 표어: 다시 한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아굽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창49:24)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TV, 신문 칼럼리스트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예배시간안내

|         |               |        |           |
|---------|---------------|--------|-----------|
| 주일예배    | 1부 : 오전 9시30분 | 주일학교   | 오전 11시    |
|         | 2부 : 오전 11시   | 청년·대학부 | 오후 2시     |
| 주일저녁예배  | 오후 7시         | 중·고등부  | 오후 2시 30분 |
| 수요예배    | 수요일 오후 8시     |        |           |
| 금요일아침기도 | 금요일 오후 10시    |        |           |
| 토요일아침예배 | 토요일 오후 10시    |        |           |
| 유치부     | 오전 11시        |        |           |

지향하는 4대 목표

예배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선교활동의 모범이 되는 교회  
부흥성장의 모범이 되는 교회  
축복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신앙생활 수칙

절대 하나님 중심  
절대 말씀 중심  
절대 교회 중심  
위계 질서 존중  
나눔 실천의 생활화

주소: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 40(장암동) 전화:02)934-1232

謹賀新年

http://www.mokpojuan.com



담임목사 모상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섬기는 분

|       |                                             |
|-------|---------------------------------------------|
| 담임    | 모상런 목사                                      |
| 부목사   | 모정선 간길현 박민수 모성운 (은퇴)장장화                     |
| 협동목사  | 추정희 전안순 윤영옥                                 |
| 파송전도사 | 파송전도사: 임재선(선교지베트남) 김은미(선교지베트남) 안윤기(선교지캄보디아) |
| 파송전도사 | 김진희(선교지캄보디아)김미경(선교지적도)니                     |
| 교육전도사 | 면(베트남신학교 유학)                                |

주소: 58714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159(산정동)  
☎(061)272-4908, 278-0692, 팩스:(061)278-0693











요한계시록 3장 강해(24)

144천의 영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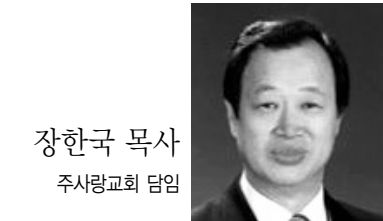
〈지난호 이어서...〉  
이와 같이 흰 옷은 순교한 후에 주시는 것인데 사데 교회의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주어서 그 흰 옷을 입고 살아서 주님과 함께 다니게 한다는 것입니다. 목 베임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흰 옷을 준다는 말씀인가요? 이는 사데 교회의 사자가 계시록 2장의 퍼가모 교회를 지나서 두아티라 교회까지 오면서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또 이미 가진 것들, 즉 첫째부활의 영광과 순교케 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데 교회의 사자가 이제는 새벽별과 철장권세를 받아가지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 즉 증거하는 자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흰 옷을 입은 자와 다니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요?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이 되십니다. 2천년 전에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구주만이 아닙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다니는 자는 어느 신앙의 자리에 서 있나요? 신부가 되어진 상태에서 신랑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자기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새벽별과 철장권세로 증거해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들을 144천의 종들이라고 합니다(계 7:2-4, 14:1-6). 144천이 결국 나중에 사명 감당한 후에 100% 순교합니다.

하나님의 종 144천이 아니지만 환란 날에 순교하는 자들은 환란이 되기 전에 이미 순교신앙으로 만들어져서 계 13:3의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의 책”에 녹명시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환란 날 직접 순교를 통해서 흰 옷을 입게 되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 베임 당해야 흰 옷을 받는 것인데 사데 교회의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주고, 그리고 주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지금 이 땅의 금초대 교회 안에 다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 녹명하고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계 3:5의 “생명의 책”은 계 13:8의 생명책에 녹명된 이후의 일입니다.

사데 교회에서 처음으로 생명책에 녹명된 것이 아니라 이미 퍼가모 교회를 거쳐서 순교할 자로 녹명되어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온 상태에서 또다시 계 3:5의 생명책에 녹명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순교할 자로 끝내져 있는데 덤으로 더 살게 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러한 자의 증거는 순교 믿음만 나오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형상으로 세우는 말씀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배출하는 일을 주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섯 번째 사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말씀대로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은 주님이 그냥 알고 인정하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앞에서 또 너의 목을 베는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 신랑 예수를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증거한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네 이름을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한 대로 내가 삼급과 영광을 네게 준다는 말씀입니다. 목을 바쳐서까지 그 중심에서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을 증거한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주님이 그에게 보상한다는 말씀이고, 그 보상이 곧 144천의 영광입니다.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의 사역에 천사들이 도왔고 쓰임 받은 것들이 하늘나라에서 인정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늘나라에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144천의 영광을 받으면 그 일에 쓰임 받은 천사들이 위로 받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이나 자녀와 같은 삼급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종으로서 쓰임 받고 일한 것을 인정받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이다. “교회들”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일곱

교회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7절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여섯 번째 단계인 필라델피아 교회에 어떤 주님으로 나타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 내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나는 모태로부터 죄 가운데 출생한 죄인이요 불품없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 기술자가 구부러지고 불품없는 나무를 가져다가 멋진 가구를 만들었다면 그 재료는 별거 아닌데 그 가구를 만든 기술자의 솜씨가 대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부러지고 불태워질 화목과 같은 존재인 우리를 아주 최고의 아름다운 선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주님이 곧 거룩하신 분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 나를 그와 같이 대하시고 그분의 최고의 걸작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여기면 거룩하신 분이 만드시는 작품의 재료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깨닫고 이 거룩하신 분이 내게 대답이 된다고 믿으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진실하신 분”으로 내게 나타나셨습니다. 진실(眞實)은 알데이아 즉, 진리와 같은 말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100%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필요에 따라 거짓말도 하고 우리가 말한 대로 100% 수행을 못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내게 주님이 진실하신 분으로 나타나셔서 계십니다.

진실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부도나지 않고 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참되게 이루시는 분이신데 내게도 그렇게 이루시는 분으로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철저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내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윗이 삼하 5:6-8에 다윗 왕국을 세우고 예루살렘에 다윗 성읍을 세웠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

목양칼럼

〈지난호 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 하므로 영이 죽고 그로 인해 사망이 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하고 경험하여 재판(판단)하는 하나님에 되겠다는 교만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악을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하고 행하는 것은 죄로 여기지만 선을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하고 행하는 것(자기 의에 속함)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짓의 아버지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노력(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자기로부터 시작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독자적인 교만의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40일 금식을 마친 주님께 마귀가 한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 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스스로 네 존재를 증명해 보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행하게 하고자 하는 자아를 부추기는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며, 자기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도리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므로 마귀를 물리치셨음을 보니다.

죄가 주관하는 이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마귀에게 속아 자기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나님을 의지함(믿음) 없이 스스로 죄와 싸우고(자기 의로) 스스로 선을 행하고자(자기 의로) 한다면 우리는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선을 행하고자 하고 악을 버리거나 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행위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라 확신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실 수 있도록



조영만 목사  
인천시온교회  
JTNTV운영이사

록 그분께 의뢰하지(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행하는 모든 수고는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요 6:63). 오직 자신의 주제(곤고한 사람, 사망의 몸, 상한 갈대, 꺼져 가는 심지, 죄인 중에 죄수, 육신에 선이 하나도 없는 자 등)를 알고 자기 노력(자기 의)을 포기한 사람만이 오직 먼저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오직 진리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므로 그 안에서 안식함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로마서 7: 21~24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고백한 것같이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함께 있어 자신을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았고, 이로 인해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하기에는 죽은 시체와 같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고백은 이제 자신의 노력을 그치고 오직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만 의지하고 주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죄에서 벗어나는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 1~2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습니다(롬 8:4).

로마서 7: 6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따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고 하심 같이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것을 믿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종노릇하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 5: 1)고 하심 같이, 결연히 종의 신앙을 벗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어야 합니다

갈 4 : 1~5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 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가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심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며 혼욕하심이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이제 주님이 오신 후로는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앙 체임에서 보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며 합계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천국은 마음에 있나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지만 아직도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 대신에 좌절과 갈등과 곤고함으로 가득 차 있어 자신의 실재한 모습으로 인해 신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을 후사의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원인은 아직 초등학문에 매여 묵학선생(율법)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謹賀新年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춘복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2부 오전 9시30분  
3부 오전 11시30분  
4부 오후 2시30분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346(개봉동)  
☎교회(02)2618-8877-8 당회장실(02)2684-3317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전예희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 (032)505-3351

시온교회



담임 조영만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동 1146-6 에스파스 B02호  
☎ (070)7501-2584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서동기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 (02)3296-034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강대일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임상국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서재석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 (031)315-829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고성규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1로 52-1  
☎(031)312-2613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장승현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오후 2:00  
삼일예배 오후 7:30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화로 62-5(봉교리 55-6)  
☎ (041)356-0644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시금열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 밤 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심야작정기도 오후 9:00(365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 010-5225-1253

(인천)은총 기도원



원장 노은총 목사

집 회 안 내

◇ 매월 첫째 주(월-목)정기집회 (세계주영광부흥사회 주관)  
◇ 매월 셋째 주(월-목)정기 성회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업의회 주관)  
◇ 매월 넷째 주(월-목)정기집회 매일 밤 10시 기도회

주소 : 인천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H.P : 010-6327-0191, 070-7518-8195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로 엄진형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7시 11시  
오후 2시 5시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0-2  
☎(02)476-7131



■ 성막 영성 “구원 서정의 5단계” 10

## II. 성막을 통한 구원사역의 비빌

〈지난호 이어서...〉

### III. 성막 영성과 구원 서정의 5단계

제1단계: 회막문 단계(출 27:16, 요 10:9), 제2단계: 성막틀 단계(출 27:9-19; 38:9-20), 제3단계: 변제단 단계(레 1:3-7; 17:11.), 제4단계: 물두멍 단계(출 30:17-21, 행 2:38), 제5단계: 성막(성소와 지성소) 단계(요 9장, 마 22:2-3, 계 22:17), 제1단계: 회막문 단계(출 27:16, 요 10:9), 부르심(소명) 회막문(양의 문) - 하나님 나라 입성(Calling) (예수 그리스도) (교회 나옴), 회막문의 구조와 의미, 구조: 회막- 조립식 구조로, 길이 100큐빗(50m), 폭 50큐빗(25m).

남편과 복권에 각각 20개, 서편에 10개, 동편에 10개 총 60개의 기둥을 세우고, 높이 5큐빗(2.5m)의 흰 세미포로 둘러칠, 회막문 동쪽 한 곳에만 있는데, 폭 10m의 휘장으로 양쪽에서 열 수 있음. 문양을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끈 베실로 화려하게 수놓았음. 의미: ①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님을 상징, ②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양의 문, 구원과 생명의 문), ③ 세상과 하나님 나라 구분, 내용: ① 평안과 만족이 없는 세상과 천국 구분(하나님 나라), ② 하나님의 부르심, ③ 하나님은 누구신가?, ④ 나는 누구인가? 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

#### 1. 평안과 만족이 없는 세상

인간들이 헬기왕성하고 참참 잘 나가는 듯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광야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죄 사함 받으려고 회막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세상은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 저 성막이 무슨 힘이 있나. 종교란 힘없는 자들이 모여 쾨변을 늘어놓고 예배의식을 갖는 것일 뿐이야……’라고 빈정대던 그들도 언젠가는 그 곳을 찾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 그들도 결국 그곳에 와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 세상 속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려도 웬지 만족이 없다. 건강하고 부귀를 누리며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웬지 불안하고 초초하며 마음에 평안이 없고 두려워만 진다. 주변을 돌아보아도 시기, 질투, 미움, 불평, 불만, 살인, 강도, 분쟁, 질병 등이 괴롭게 한다. 몸은 평등하고 집 나간 탕자처럼 재물은 없어지고 병들 열매도 없어 못 먹게 될 형편이면 그때에 비로소 인간들은 후회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9-10절에서 ‘부려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음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송택규 박사  
JTNTV 주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기록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10),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하셨다.

#### 2. 하나님의 부르심(Calling)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황량한 광야로 인도해내셨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신 다음 성막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다. 왜일까? 여기서 광야는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며 회막문 안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세상에서 빨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죄 사함 받고 자유하며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마 9:13), 하나님은 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너무도 잘 아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부르셨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찾아 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임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고, 29절에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를 얻으리라’고 하시며 죄인들을 부르셨다. 주님의 부르시는 미세한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자, 죄인된 인간들이 사는 길은 구원자이시요,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

#### 3.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요일 3:9 悔心).

주님은 ‘멸망의 문은 넓지만 구원의 문은 좁다’고 하시며 그 구원의 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 7:13-14)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또한 주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요 10:7-9)고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인 자신에게 나아올 때만이 구원을 얻고, 들어가고 나가며 풀을 얻는다고도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문을 들어오는 데는 아픔이 따르므로 크나큰 결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세상의 부귀영화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성격조차도 다 버리고, 영생을 위하여 새롭게 시작하려는 결단의 각오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 문은 한 발은 세상에, 또 한 발은 주 안에 걸쳐서는 들어갈 수 없는 문이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회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세상을 떠나 이 문을 들어온다는 것은, 들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이었던 들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잘려져 나와야 되는 것과 같다. 들 포도가 자기 들 포도나무에서 잘려져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된다는 것은 소망이며 기쁨이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풍성한 열매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풀을 얻으리라……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9-10)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회막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 안은 하나님 나라요, 천국인 것이다. 이때 하늘에 있는 선지자들은 ‘Welcome, Congratulations!’를 연발하며 환영할 것이다.

#### 4. 누가 구원의 문(회막문)으로 들어가는가?

첫째, 하나님을 사모하여 스스로 찾아온 자들이다. 이들은 영적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깨끗한 영을 가진 자들로 가장 복된 자들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깨어지고 부서지고 실패한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은 자기 의가 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되는 대로 살아오며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며 잘못된 가치관이나 자기 의로 모든 것에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며 살다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실패하여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다. 즉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 大韓民國 의 未來를 위한 教育의 改革을 위한 研究 (8)

(韓國近代教育의 始作과 發達의 歷史的 考察)(1884년-1945년)

〈지난호 이어서...〉

흥선군의 차남을 왕위에 올리고 흥선을 대원군에 봉하여 섭정을 맡기기 전까지 왕실을 지배하던 실질적 최고 권력자였다. 고종은 청국에 고부사(告誨使)를 보내 시호를 받아오던 종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청의 속국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과시했다. 세자 척이 성불구자라 세자빈이 포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도 이 무렵이었다. 지영은 복묘에 살고 있는 무당 박가를 궁중으로 불러들여 연일 치성을 드리는 등 온갖 방법을 다했지만, 성불구가 어디 푸닥거리로 치유될 신병(神病)이던가. 궁중 예산은 바닥이 난 지 오래고 국가재정도 하루하루 연명하기 빠듯했다.

모두가 외교사절을 교환하고, 외교교문 군사교관 교육자 기술자 등을 초빙하고, 학교와 병원을 짓는 데 드는 돈이었다.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주로 외국 장사치들의 새로운 상품에 맛을 들어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곳에 돈을 펴평 써댔다.

국가나 백성이나 신문명, 신문화를 습득하는 데 지불해야 하는 월사금인 셈이었다. 가진 것이라곤 쌀밖에 없는 백성들이 그마저 탕진했으니, 새삼 춘궁기의 무게가 백성들의 허리를 짓눌렀다. 방방곡곡에서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찢었고, 그 원성이 모여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것이 동학단이었다.

동학은 조상을 배척하는 서양오랑캐의 서학에 대항하여 세운 학문이었다. 동학은 최제우에 의해 천도교라는 신흥종교로 확산되었다. 인내천(人乃天), 즉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민본사상을 바탕으로 민중 속으로 파고든 동학은 기세 좋게 확산되어갔다. ‘근본도 없는 서양오랑캐들을 추종하지 말고 우리 교유의 미풍양속을 보존하며 나라에 협력하여 다 함께 잘살자.’ 제족구민(除暴救民) 최양척 왜(斥洋倭) 천도교 교리는 국시(國是)와도 일치하여 조정의 묵인 아래 폭 넓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천도교 세력이 날로 응성해지자 5백년 침체일로부터 위기를 느낀 유럽이 들고일어났다. “천도교는



김창룡 목사  
칼럼리스트 金昌龍 牧師  
(하나님이지자인신교회)

후세무민으로 군주를 업신여긴다. 당장 교주를 처형하라.” 그때까지 조선은 유럽의 나라, 유럽 출신 사대부들이 지배하는 조정은 천도교 개창 3년째인 교주 최제우를 처형했다. 2대 교주 최시형은 최제우보다 매사에 소극적이었지만 교세는 확장 일로에 있었다. 천도교는 특히 충청도 전라도 일대에서 세를 떨쳤다. 고종 29년(1892), 조정에서는 각중에 천도교 탄압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만민은 빈부귀천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천주교 교리와 상통하는 동학의 이 평등사상이 지배계층의 비위를 거스르기 시작한 것이다.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가 하늘에 닿으면 천지가 개벽할 것이라는 천지개벽설도 모두가 탐관오리인 사대부들을 자극했다. 가뜰스나 전국에 농민 봉기가 분분하던 시절, 조정의 갑작스런 천도교 탄압은 억눌린 민심에 부하를 걸기 시작했다. 동학교도들은 교주 최제우의 신원(伸冤)을 청원했으나 씨알도 안 먹혔음은 불문가지다. “우리는 되도록 종교적 선을 넘지 말도록 합시다.” 암행어사 어윤중이 전라도로 급파되어 탐관오리의 강력한 징계를 약속하면서 천도교도들은 어느 정도 무마되었다.

#### 4. 갑오개혁(甲午改革)(1894)과 近代教育法の 제정

1) 갑오개혁과 교육체제  
우리나라의 근대교육의 학제와 근대교육의 사상을 정립한 것은 甲午更張(1894)에서 비롯된다. 조선 정부는 새로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국가체제의 개혁을 1894년에 실시하였다. 정부체제의 근대 국가 체제로 변화하면서 교육개혁도 시행되었다.

甲午改革은 새로운 국가체제에

서 국가의 교육을 관장하는 기구로서 학무아문(學務衙門)을 설치하였다. 학무아문은 국가의 교육과 학무를 총괄하였다. 그리고 학무아문에서는 학무아문의 고시를 발표하여 소학교, 사범학교, 대학, 전문학교 등의 새로운 학교설립을 고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근대학제의 수립은 갑오개혁에 의하여 학부아문(1894)이 설치되고, 학부아문 고시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1895년 4월부터 각종학교 관제와 규칙이 제정 공포되었다. 따라서 한성사범학교, 외국어 학교, 성균관, 소학교 등의 법제가 제정되고 또한 1899년에는 의학교 중학교 상공학교 등의 학제가 제정되었다.

근대학제의 특징은 소학교, 중학교, 전문학교, 대학으로 교육체제를 구상했다. 둘째는 근대적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셋째로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시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였다. 학무아문이 설치되면서 각종학교의 설립과 운영관리를 관장하였다.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수용은 새로운 교육문화수용과 발전이라는 장에서 설정되고 발전되었다. 우리나라의 근대교육은 전통사회의 교육문화와는 형태적으로 다른 환경인 세계권의 교육문화를 수용하였다. 근대교육의 형태로 교육목적, 교육제도, 교육내용, 교육방법, 학교제도 등의 모든 교육 분야의 변화가 있었다.

#### 2) 교육입국조서

근대교육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근대교육사상의 정립이 있었다. 고종은 1895년 2월에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하였다. 교육입국조서에는 우리나라의 근대교육이념이 제시되었다. 그 내용은 첫째로 국민교육의 사상, 둘째로 덕, 체, 지의 인간교육사상, 셋째로 실용적 교육사상을 명시하였다. 교육입국조서는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국가주의, 지역체, 실용적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고종은 흥법14조를 공포하여 우수한 자재를 널리 파견하여 외국의 학술과 기예를 배워오도록 하였다. 또한 영재교육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소학교와 사범학교를 설립하여 반상의 구별 없이 인재를 양성할 뜻을 밝혔다.

〈다음호에 계속〉



謹賀新年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담임 정기환 목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75번길 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제일교회**

영적대각성운동본부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예배 밤 8:30

담임 이기웅 목사

경기도 광주시 목동 378번지  
☎수양관 031)769-0692-3

대한예수교 장로회 **홍성제일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담임 오종설 목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용진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일 낮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담임 이상중 목사

우) 55353 전북 완주군 용진면 원구역2길 15-5  
전화 : 063)244-2374 010-9696-6377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생명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00  
수요예배 저녁 7시00

담임 박민규 목사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236-4  
☎(033)385-2571/010-9621-9627

대한예수교 장로회 **벚엘중앙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담임 이혜진 목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032)667-7147 H.P 010-3287-1500

**주성청각장애인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

담임 박용숙 목사 (우송초)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8-6  
☎(02)414-1191 H.P 010-3775-5154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편정-1급 ~ 3급자 환영)

원장 박순중 목사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541-0687 H.P 010-7405-9191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담임 최낙현 목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덕교회**

장 로 : 송두현, 박성현  
장립집사 : 김정구, 황성현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전 3시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9시

담임 서명범 목사

충남 공주시 일락산2길 6-1(봉황동)  
☎(041)853-9966 http://lov153.cafe24.com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7시

담임 박관근 목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 018-320-1507

**조에 교정선교회**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담임 유순옥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H.P 010-3035-5704



# 지저스타임즈 2016년 송년감사예배 드려

## 생명을 살리는 방송, 다시오실 주님의 재림의 나팔을 불라



방송신문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방송, 영원한 진리로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언론사로서 국내외 뜻을 같이하는 목회자들, 집사 장로 등이 지난 23일(금) 오전 11시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소재 뱀엘중앙교회(이혜진 목사/본지상임이사)에서 송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사무국장 박영민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공동회장 김선우 목사의 기도, 특송에는 김병성 전도사(찬양사역자), 하프연주에 장백희 전도사(예수사랑교회), 윤영이사 배영자 목사(금천시온교회), 강정남 집사(찬양사역자) 등이 찬양과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어 사장 소진우 목사(예복교회 담임/ 연부협 연수원장)는 겔

37:11-14절을 통해 “너는 그 일을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사장 소 목사는 “믿음의 사람은 불편한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되게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저스타임즈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역할을 감당하는 긍정적인 신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신문”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봉헌찬송에 강정남 집사, 봉헌기도에 류기형 목사(충청신학장자)가, 광동훈 목사(대신석수측, 부총회장, 상임이사) 고성규 목사(다니엘교회, 상임이사)가 권면했다. 아울러 사무국장 광영민 목사

의 인도로 신문사를 위하여(본사와 지사) 문서선교를 통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국내외의 50여 지사와 제후사, 미국 LA 크리스천헤럴드 AKTV18.10방송국, 국가 안보와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장소를 제공한 뱀엘중앙교회 담임목사와 선교목사를 위하여, 이사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한 후 사장 소진우 목사(사장,연수원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뱀엘중앙교회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 참석한 언론사 기자와 이사진들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애잔을 나누고, 백운성 목사(총무국장, 안산지사장)의 기도로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는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국가적으로나 신문사적으로 보나 다사다난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한해가 저물고 곧 새날이 밝아옵니다. 안 좋았던 이전 것들 다 잊어버렸으면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기독인들에게 읽히는 신문과 방송이 되

도록 모든 임원 및 이사여러분께서 더욱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전문 신문, 지저스타임즈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늘 기도 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더욱더 겸허한 자세로 신문사를 섬기며 기도하고 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히고, 주기도문으로 이사회를 마쳤다.

한편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는 이사 및 기자를 다음과 같이 사령했다.

이윤자 목사(부천뱀엘중앙교회) 부사장/연부협총회 부총재, 노병주 선교목사(부천뱀엘중앙교회) 상임이사/연부협 상임총무, 모성준 목사 인천지사 취재부 기자, 백운성 목사 안산지사장 총무국장/연부협총회 실무총무(취재부장), 배영자 목사(금천시온교회) 운영이사/연부협 공동회장, 우재성 목사(영풍월드교회)운영이사/공동회장, 고성규 목사(다니엘교회) 본사 상임이사/연부협 부총재, 정은혜 기자, 안지연 기자 등이다.

# 연탄 나눔으로 예수님의 사랑 더 크게 느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강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광림남교회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성육신 하신 이 땅에 오셔서, 거창한 일을 행하기보다, 작고 소외된 곳으로 들어가 상하고 병든 자를 다스리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며, 새롭게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소망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탄트리볼 장식이 시작되었다.

성도들은 성탄트리볼에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묵을 적어내려 갔고, 청년들은 함께 중보기도하며 성탄트리볼 꾸며갔다. 성탄트리볼에 트리볼과 기도제 목들이 하나하나 걸릴 때마다 이웃을 향한 사랑도 쌓여갔다. 그 사람의 기쁨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연탄 1,800장을 선물할 수 있었다.

연탄봉사 당일, 무엇보다 좋은 날씨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한 집 한 집 연탄을 배달하면서 무거운 무게에, 숨 막히는 연탄 가루에, 점점 빼근쳐져오는 근육에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연탄을 받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감사함을 느



꼈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그들에게 행복이 되고 위로가 됨을 느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하시고자 했던 것들과 바라보고자 했던 것들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고맙다”며 집에 있는 컵을 꺼내와 우리에게 커피를 한잔씩 타주던 할머니의 손을 괜히 한번 건강한 공통체가 세워졌다. 대강절을 지나며 자신의 백성들과 교제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감사예배와 사랑의 실천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한다.

를 기억해주는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고, 값없이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었다.

사랑의 연탄나눔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감사예배로 시작해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돌봄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참된 예배와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졌다. 대강절을 지나며 자신의 백성들과 교제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감사예배와 사랑의 실천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한다.

## 2016 전문인선교개발대회 큰 호응 얻어

### 2017년 4월 3일 서울 강일교회에서 2회 대회 개최

#### 평신도선교사가 해외선교의 페러다임을 바꾼다

GMS, GMS비즈니스위원회, TMN 주최 · 주관으로 ‘GMS TMN 2016 전문인 선교개발대회’가 대한교회(원로 김삼봉 목사, 담임 윤영민 목사) 및 영성고등학교에서 12월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최됐다.

‘GMS TMN 2016 전문인 선교개발대회’는 선교부흥회, 전문인 선교심포지엄, 전문인 선교엑스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30여 개국 선교사들이 선교지의 특산물 및 제품을 국내에 소개하는 부스가 설치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열악한 해외선교현장에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비즈니스를 접목한 선교전략을 선



보이고, 각 프로그램과 커뮤니티를 통해 단체나 교회에게 전수하는 교류의 장이 됐다.

대회는 전국 선교회장자, 평신도 및 교역자, 선교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비즈니스 전문

대회에 앞서 개회예배는 황바울 목사(TMN 회장)의 사회로 송주현 목사(GMS비즈니스위원회 서기)의 기도, 김찬곤 목사(GMS 이사장)의 설교, 송종완 목사(GMS비즈니스위원장)의 환영사, 조용성 목사(GMS선교총무)의 격려사, 강인중 목사(GMS선교사회장)의 축사, 윤영민 목사의 환영인사에 이어 김삼봉 목사(증경총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김찬곤 목사는 설교를 통해 “사람들은 비즈니스선교를 단순히 사업이지 선교가 아니라고 비판하기도 한다.”라며 “이런 말에 대해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비즈니스선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능욕 담합도 감당하던 바울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기에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날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담임)는 선교부흥회에 대해서, 심포지엄 특별강연으로 상영

구 선교사(GMS필리핀)가 ‘교회사 속에 나타난 비즈니스자비량 선교와 자립선교 방안에 관한 연구’, 김범규 선교사(GMS가나네 더링)가 중동-북아프리카에서의 TMN, 윤종호 선교사(GMS카타르)가 TMN-중동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중국 내몽고에서 목장을 하는 황바울 목사(TMN회장), 윤종호 선교사, 정규재 목사(사무총장) 등은 선교보고가 있었다. 이어 전문인선교사의 비전을 갖고 참석한 이영진 청년은 “전문인 선교사로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전문인선교개발대회를 알고 참석하게 됐다. 첫 회가 돼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지만 좋은 정보를 얻고 기도의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됐다. 2회 때는 더 많은 선교사와 단체가 참석하여 전문인 선교사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피종진 목사 초청 1월 국내·외 부흥성회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Goodbless3333@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총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  
T: 02-3411-9191  
F: 02-3401-7770  
F: 02-3411-9111

2(월) 오후 안양 갈매신심성가대(원장 임예제 목사, 담임 조성근 목사) 031472-7212  
2(월)~4(수) 동해 명성교회(이명철 목사) 0333533-6455  
5(목) 저녁 세종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041852-2211  
6(금) 아침 화성 동림중앙교회(이 선 목사) 031227-0241  
7(토) 저녁 부천 갈매리교회(조재환 목사) 0321657-5177  
9(월) 오후 (사)순성세계복음선교회 주최 청소년드림캠프  
장소: 세종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041852-2211  
11(수) 저녁 천안 행복교회(성관성 목사) 041568-0688  
주최: 한국기독교영양회(대표회장 성관성 목사)  
13(금) 오전 구리시민교회(라성열 목사) 031556-9191  
16(월) 오후 부천 소망교회(정민철 목사) 010-3224-2345  
17(화) 오전 가평 강남복음성가대(원장 김성광 목사) 031584-1001  
21(토) 오후 남서울중앙교회(피종진 원로목사, 여한금 담임목사) 023411-9191  
23(월)~24(화) 제203차 해외성회(203rd Overseas Assembly)  
일본(Japan) 나라타 갈매신성가대(원장 김태실 목사) 81-90-6535-9118  
일본(Japan) 나라타 사공교회(정소대 목사) 81-90-6535-9118  
25(수) 오전 창원은혜교회(피은혜 목사) 010-8540-8642  
29(주) 오전 일산순복음영산교회(강영선 목사) 031901-0191  
30(월)~31(화) 필리핀(Philippines) 마닐라 한인목회자연합성회(준비위원장 강종희 선교사)  
장소: 마닐라 Famous Christian Academy & 갈보리기도원 63-917-246-5400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진리) 2017년 신년특별수련회

총회장



강사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 주 제 : 다니엘서를 통한 주 재림신앙을 갖자

▷ 장 소 : 유성교회 본당(오진철 목사 시무)

※자세한 것은 총회서기 010-8914-0969, 회계 010-9621-9627

▷ 주 간 : 총회 교육부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덕로5길 99

▷ 일 시 : 2017년 1월 9일(월) ~ 11일(수)

▷ 회 비 : 없음

부총회장

서 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부회록서기

회 계

부회계



조조복 목사  
(창영교회)



오진철 목사  
(유성교회)



박민규 목사  
(새생명교회)



배만복 목사  
(축복교회)



김성덕 목사  
(생수교회)



이영이 목사  
(유전교회)



김정미 목사  
(새예루살렘교회)

총회장 장한국 목사님과 임원 모두는 총회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땀 것을 약속드립니다.

총회사무실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층 대림프라자 고호5(구.내손동) Tel 031)424-7612

총회장 : 장한국 목사 H.P 010-4436-7060, 서기 : 오진철 목사 H.P 010-8914-0969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제19회 예수님을 빛내는 축제(이하-예빛제)로 많은 박수갈채 받아

“기쁘다구주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라는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성탄절이 환하게 장식되고 반짝거리는 종탑을 보면서 많은 이웃이 성도들과 함께 참석하여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축제의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소재 영광교회(담임 조강수 목사)는 24일 1부 예배가 진행되고 이주홍 목사는 담임목사

를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한 후 축도로 마쳤다.

이어진 2부 성탄절야회는 이주영, 이희선의 사회로 시작되어 1. 오프닝 유치부, 2.뮤지컬 주일학교, 3. 찬양 합시바, 4. 성령충만365 찬양, 5. 특별무대 순이와 썬희, 6.중,고,청,단체댄스 순으로 진행되고, 초청받은 이웃들과 성도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함께 찬양을 부르며 손뼉을 치면서 마음껏 기쁨을 나누었

다. 이날 영광교회가 마련한 푸짐한 선물과 정성을 다해 마련한 따끈따끈한 떡국과 다과를 나누는 동안 성탄절야회는 축제의 장이었다.

25일 성탄주일 오전 11시 성탄감사예배에 먼저 강대상 위에 계익을 준비하고 이주홍 목사와 선교목사, 장로들이 등단한 가운데 촛불을 점화하고 사 랑하는 우리예수님 생일축하합니다. 하 는 축하송을 부른 후 촛불을 소화했다.

이어 김준현 장로의 기도로 이주홍 목사는 요1:4-9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영광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특별히 마련된 식사와 과일을 나누는 가운데 덕담을 주고받는 등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었다.

영광교회 성도들은 200여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하며 찬송을 부른 후 2016년 성탄절은 막을 내렸다.

한편 지난 11일 주일 밤은 본 교회



의 청년회, 고등학생, 중학생, 등 영광교회 중,고,청 주회로 2016. 제19회 예수님을 빛내는 축제(이하-예빛제)”가

진행되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예빛제는 1부 찬양예배, 위트니스 워십밴드 2부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등의 찬양과 연극으로 많은 성도들의 박수를 받았다.

위트니스 워십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예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한 청년들이 위트니스(증인, 목격하다)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고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역체이다.

또한 영광교회 중,고,청년들은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하여 연합찬양예배를 매주 토요일이면 뜨거운 찬양과 정경예배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영광교회 성도들은 매주 화요일기도회와 매주 목요일 모임으로 예배공동체 사역이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성도들은 24시간 각 구역별로 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담임목사님이 속히 돌아와 강단에 서서 양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날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 힘쓰고 있다. 영광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용광로처럼 불타오르고 있다.

## 영광교회 예빛제 축제 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담임 조강수 목사

축 2017 謹賀新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셨음이니라.(사60:1)”

# 영광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표어: 창세로부터 주님재림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하는 교회



●담임목사: 조강수  
●부 목사: 이주홍  
●협력선교사: 김종록, 이두원,

차명호, 권오성  
●장 로: 임청수, 이철욱,  
심재현, 김준현, 고재훈

●심방전도사: 원명숙  
●교육전도사: 이민규, 이주영  
●전 도 사: 양승숙

●성가 대장: 박남주  
●지 휘: 박성진, 왕호정  
●반 주: 권혜영, 흥은지, 박진주,  
이요한

◆예배시간안내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30  
수요 밤 예배: 저녁 8:00

금요철야예배: 밤 11:00, 새벽예배: 새벽 4:30  
주일학교 예배: 주일 오후 1:00, 학생부, 청년부  
연합예배: (토)오후 6:00





## 2017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본의 섭리와 은혜로만 충분합니다.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사장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 제목: 나의 모든 소원이 성경: 시편 38편 9절 찬송가 181장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모든 필요와 요구하는 바를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저자는 자신의 요구를 반복하지 않는데 이는 자신의 모든 경우를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울 사람은 없어도 도울 주님이 계십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기대하면 실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 제목: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 시편 38편 10-11절 찬송가 400장

상처의 원인은 문자적인 뜻은 한 번 내려치기, 한 번 바람이 불기입니다. 여기의 한번 내리치기란 하나님이 인간 위에 내리신 재앙이나 심판이란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그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까지도 그를 멀리했다는 문맥에 의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한 번이자 엄청난 크고 무서운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 제목: 문제보다 더 크신 성경: 시편 38편 12절 찬송가 545장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무를 놓고 라는 말을 이것을 본 시편 기자가 약해지고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에 의하여 버림을 받아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자가 되어 버린 사실을 이용하여 대적들이 자신을 해 하려고 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기억 할 때는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문제를 하나님 보다 크게 본다

면 우리는 문제 앞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 제목: 듣지 아니하고 성경: 시편 38편 13절 찬송가 505장

듣지 아니하고 라는 말은 대적들의 헛된 자극에 반응을 보이거나 분노하지도 않고 그들이 아무 말도 안한 것처럼 조용히 인내했다는 말입니다. 이를 좀 더 영적으로 말하면 죄를 인식함으로써 변명도 논쟁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처분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즉 본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계속 침묵을 유지했는데 그 까닭은 자신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 확실히는 모르는 상태지만 죄가 있다면 그것을 징벌하길 이는 하나님이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 제목: 반박 할 말이 성경: 시편 38편 14절 찬송가 323장

반박 할 말이 없나이다 라는 문자적인 뜻은 반응이 없다 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변호를 위한 변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과 고통, 시험은 감당 할 수 있기에, 나를 성장·단련하기 위한 과정이 라고 생각해보는다면 또한 모진 고통과 고난 이기신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날도 승리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분이 더 크신 분이시며 이길 힘과 용기 주십니다.

### 제목: 믿음의 사람은 성경: 시편 38편 15절 찬송가 292장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의 원문의 문자적인 뜻은 여호와 당신에게 내가 소망을 두어왔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 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당하게 모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자는 그의 대적들로 인한 수모와 억울함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일, 부당한 일 당할 수도 있고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 제목: 누구를 기쁘게 하라 성경: 시편 38편 16-17절 찬송가 333장

본절에서 저자는 자신의 힘이 거의 고갈되어서 계속되는 죄악 속으로 넘어질 위험에 처했던지 아니면 기증되는 짐 때문에 자꾸 가라앉고 있는 그래서 그의 대적들로 하여금 승리의 쾌재를 부를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마귀가 박수치고 좋아 할 일에 목숨 걸고 시간을 쓰기 보다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며 삽시다.

### 제목: 철저한 회개 성경: 시편 38편 18절 찬송가 213장

본 시편 저자는 그의 심각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불행의 원인 이기도 했던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임을 강조해서 밝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땅 위에 살면서 갖가지 역경에 처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의 중요한 한 가지는 죄가 그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 막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철저한 회개인 것입니다.

### 제목: 하늘의 사람의 진가 성경: 시편 38편 19절 찬송가 250장

본절이 의미하는 바는 저자 자신이 연약하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의 대적들은 생기가 왕성하고 육체적으로도 아주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추진력 있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자의 연약함을 그들의 유일한 점으로 삼았으며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저자는 그들과 겨룰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면으로 봐도 불리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종재만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라는 하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 제목: 출발점 성경: 시편 38편 20절 찬송가 496장

본 구절의 의미는 본 시편 기자는 대적들이 그에게 악행 했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가 의로운 자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자가 대적을 당하거나 고난을 받는 출발이었습니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언행심사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은 세상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 제목: 그의 시련이 주는 바 된 교훈 성경: 시편 38편 21-22절 찬송가 429장

그의 시련은 하나님 앞으로 그를 인도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고통과 시련이 의도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시련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그에게 있어서 시련은 괴로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며 시련의 종국적인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시련과 괴로움을 고난과 고통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비한 복을 앞 당겨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써 승리 합시다.

### 제목: 나의 각오는 성경: 시편 39편 1절 찬송가 9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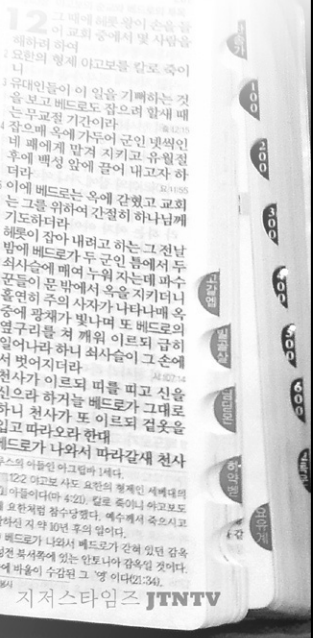
여기의 각오는 허로 범죄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의 불평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중얼거림으로 잘못 비추어질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믿음하나도 응답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내 안에 있다면 무조건 긍정 할 수 있습니다. 내 입술이 좋은 날 보기위하여 내 입에서 거짓을 멀리하며 복 담길 그릇이 되기 위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 제목: 억누를 수 없는 감정 성경: 시편 39편 2-3절 찬송가 205장

그 감정의 불꽃이 솟아올라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가리킵니다. 즉 그는 도저히 그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 그 감정을 말로 토해 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감정과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려하지 말고 전능자의 손이 나 자신과, 내 가정, 내 기업에 간섭하여주시길 간구합니다. 그

## 새해에는

새해에는 무슨 일을 만나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새해에는 모든 일을 기도 후에 행동하며 살게 하소서  
새해에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새해에는 원수 된 것 용서하며 화목하게 살게 하소서  
새해에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복종하고 살게 하소서  
새해에는 주님과 목자의 마음 안에서만 살게 하소서  
새해에는 성령을 근심 시키는 일이 없이 살게 하소서  
새해에는 주님 일을 제일 먼저 행하며 살게 하소서  
새해에는 남자답게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게 하소서  
새해에는 여자답게 아름답고 화사하게 살게 하소서  
새해에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복된 만남 복된 길로만 가며 살게 하소서  
새해에는 모든 것이 통성하여 나누어 주며 살게 하소서  
새해에는 염려 근심 다 버리고 밝은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복을 더 받아서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새해에는 모든 소원 다 이루어 영광 돌리며 살게 하소서



# 소진우 목사 2016년-2017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칼럼리스트

| 2015년 9월                    |
|-----------------------------|
| 31-1 언문사 연수원 수련회(대표장조강수 목사) |
| 1 오산리교회(최정일 목사)             |
| 3 성산수양관(윤호근 목사)             |
| 7-11 온누리복음회(김기호 총재)         |
| 14-15 교단총회                  |
| 14-16 군지대교회(이희수 목사)         |
| 20 주님의교회(오영석 목사)            |
| 21-24 암익후보자교육               |
| 2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2015년 10월          |
|--------------------|
| 6-8 성산수양관(방안석 목사)  |
| 12-13 장기도회         |
| 18 새빛교회(장동술 목사)    |
| 19-21 영광교회(임승원)    |
| 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25-29 가을부흥성회(예복교회) |

| 2015년 11월          |
|--------------------|
| 2-5 광선수양관(방안석 목사)  |
| 9-11 성일교회(강인원 목사)  |
| 16-18 햇빛교회(황인준 목사) |
| 2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23-25 영신교회(박조영 목사) |

| 2015년 12월                   |
|-----------------------------|
| 30-4 미안리선교지(방문)             |
| 7-9 살롬교회(고정일 목사)            |
| 14-16 정동신산성(그리스도의교회(최낙원 목사) |
| 2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28-30 반석교회(권승일 목사)          |
| 31 예복교회(송구영신예배)             |

| 2016년 1월           |
|--------------------|
| 4-8 필리핀사역자컨퍼런스     |
| 11-13 한돌교회(신현덕 목사) |
| 1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18-21 에덴교회(양희목 목사) |
| 24-27 선일교회(이판석 목사) |

| 2016년 2월             |
|----------------------|
| 1-4 김립산기도원(이목원 목사)   |
| 8-11 광은기도원(김해배 목사)   |
| 1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15-17 대구영리교회(류창호 목사) |
| 22-26 세계선교사대회        |

| 2016년 3월     |
|--------------|
| 봄철 축복 대심방의 달 |

| 2016년 4월           |
|--------------------|
| 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4-7 안산세광교회(윤주호 목사) |
| 11-12 장기도회         |
| 12-14 신광교회(이종서 목사) |
| 18-20 수도교회(신순철 목사) |
| 25-27 양문교회(노희식 목사) |

| 2016년 5월            |
|---------------------|
| 2-5 영광교회(조강수 목사)    |
| 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9-11 한우리교회(윤준종 목사)  |
| 15-18 예복교회(복원부흥성회)  |
| 23-26 초대출만교회        |
| 30-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2016년 6월             |
|----------------------|
| 30-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5 새생교회(홍정민 목사)       |
| 6-10 필리핀 제2교회 헌당식    |
| 1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13-15 사랑의교회(최용석 목사)  |
| 16 안양갈멜산기도원(이예제 목사)  |
| 17 신나는교회(이정기 목사)     |
| 20-24 선교사신학생여름세미나    |
| 27-30 사랑제일교회(오만곤 목사) |

| 2016년 7월              |
|-----------------------|
| 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3-9 십이특별기도대성회(예복교회)   |
| 11-13 모리아교회(조인희 목사)   |
| 18-21 소망교회(최유식 목사)    |
| 25-28 에덴금식수양관(양희목 목사) |
| 3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2016년 8월             |
|----------------------|
| 10-12 한일산기도원(이영금 목사) |
| 15-18 광은기도원(김해배 목사)  |
| 22-25 김립산기도원(이목원 목사) |
| 2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29-1 천문기도원(최정숙 목사)   |

| 2016년 9월            |
|---------------------|
| 5-8 교단총회            |
| 12-17 추석주간          |
| 19-23 선교지방문         |
| 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26-28 다사랑교회(방준원 목사) |
| 29 군산영교회            |

| 2016년 10월            |
|----------------------|
| 3-6 에스겔교회(김양선 목사)    |
| 10-11 장기도회           |
| 17-21 임원수련회          |
| 2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24-27 새진영교회(심정학 목사)  |
| 31-11,2 홍주교회(오영석 목사) |

| 2016년 11월             |
|-----------------------|
| 5 안양갈멜산기도원(이예제 목사)    |
| 7-9 살롬교회(고정일 목사)      |
| 14-16 경천교회(이원경 목사)    |
| 17-18 노회교회(심방)        |
| 2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21-23 총회성대회           |
| 28-30 행복예수원교회(미영진 목사) |

| 2016년 12월            |
|----------------------|
| 4-7 주님의교회(오영석 목사)    |
| 12-1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18-24 겨울부흥성회(예복교회)   |
| 26-30 은사리교회(최태식 목사)  |

| 2017년 1월           |
|--------------------|
| 2-4 거창성결교회(김성철 목사) |
| 9-12 실목교회(조민희 목사)  |
| 16-18 풍기교회(백현기 목사) |
| 23-28 (인도선교)       |
| 30-2 광은기도원(김해배 목사) |

| 2017년 2월            |
|---------------------|
| 3 한일산기도원(이영금 목사)    |
| 6-9 김립산기도원(이목원 목사)  |
| 13-17 선교지세미나        |
| 20-22 초대총만교회(김남 목사) |
| 27-1 충무교회(서종표 목사)   |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장암동)



# 수도권지역 경기도 여주 전원주택 분양

**은퇴하신목사님의 노후안식처**

성도님의 전원주택으로 훌륭합니다.  
30여채와 단지 내 수양관 준비 중...

**전원주택모텔하우스** **오픈**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여주 전철역 개통)

**주인이 직접 분양합니다.**

**수양관을 준비 중입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교통환경

- ◆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 ◆ 중부고속도로, 광주에서 서원주까지 (56.95km)개통됨
- ◆ 대신IC에서 전원주택 현장까지 2km(2~3분소요).
- ◆ 강남, 분당에서 대신IC까지 30분.
- ◆ 천호동, 구리시에서 대신IC까지 45분.
- ◆ 여주 전철역(강남 분당에서 여주까지 11개역 57km)개통됨.
- ◆ 강남 분당에서 여주 전철역까지 45분.
- ◆ 전원주택에서 여주시청, 여주 전철역까지 차량 12분.
- ◆ 양평 전철역까지 차량 20분(양평에서 전철로 청량리까지 50분).
- ◆ 제1영동고속도로까지 20km 15분. 중부내륙고속도로까지 5km 5분.

## 전원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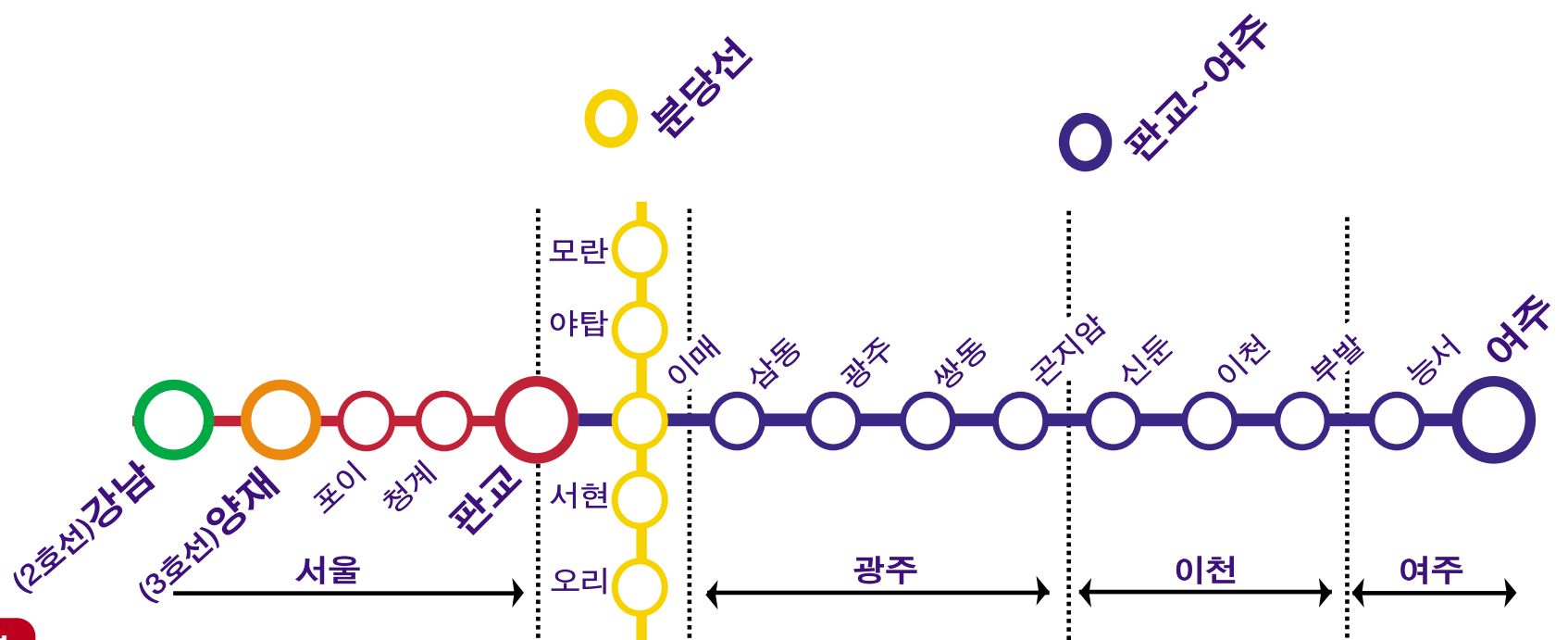
- ♥ (1억6,500만원 / 1억9,500만원)
- ◆ 대지 100평, 도로(별도 15평), 주택 20평(1층)=1억6,500만원
- ◆ 대지 100평, 도로(별도 15평), 28평(2층)=1억9,500만원
- ◆ 고급 소파, 대형TV, 고급 싱크대, 정원, 잔디, 과일나무, 꽃나무, 팬스, CCTV, 텃밭 30평
- ◆ 넓은 진입로, 주택단지 중앙로 7.5m • 여주상수도개설
- ◆ 농협, 마을금고, 시중은행 대출 60~70%까지 가능(이자 3%대).

## 교육환경

- ◆ 초등학교, 여중 · 고등학교, 남중 · 고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 기 타

- ◆ 전원주택에서 1km= 면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농협, 축협, 병원, 약국, 마트, 복지관, 대형운동장 등.
- ◆ 한강 자전거도로 3km, • 이포보 4km,
- ◆ 세종대왕릉 12km, • 명성왕후 생가 15km, • 여주 도자기 공장 5km.



**분양문의**  
**02) 854-1355**

I 주 소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초현리 312-4호(초현리 산 48번지)

I 전원주택 홍보 전화번호 : 010-5468-6574, **032-672-3031** I <http://jtntv.kr> (JTNTV방송) 배너광고 중